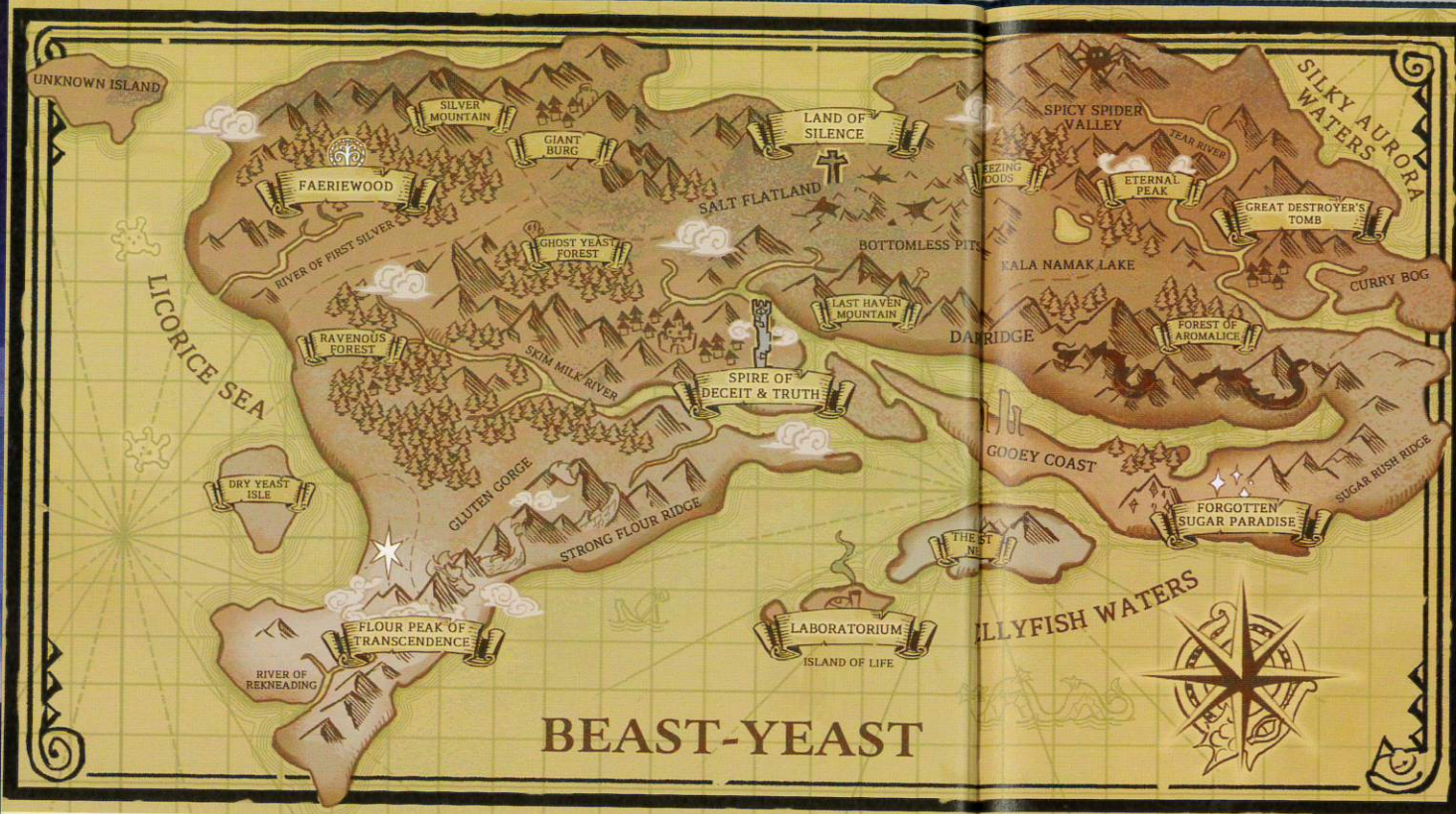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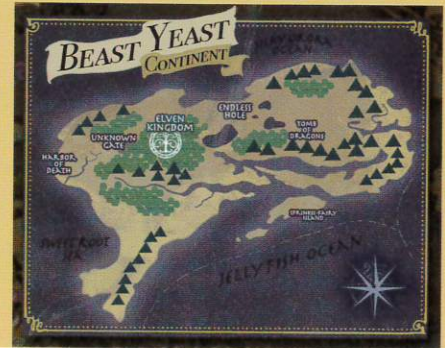




1 Concept Sketch



Beast-Yeast 비스트이스트 대륙

끈적하고 새까만 감초 바다 너머, 이빨이 쿠키만한 디저트 괴수와 끝없는 어둠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비스트이스트 대륙이 있다. 극히 소수의 쿠키들이 이 위험한 대륙에 발을 들인 적이 있지만, 여전히 드넓은 비스트이스트 대륙을 모두 탐험해 본 쿠키는 아무도 없다고 전해진다. 그 때문일까? 쿠키들에게 알려진 비스트이스트 대륙의 지도는 여러 쿠키들의 모험담과 목격담을 토대로 지금도 끝없이 그려지고 또 수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Little is known about the mysterious continent of Beast-Yeast lying across the dark, viscous waters of the Licorice Sea. Few Cookies have set foot in these lands populated by dreadful dessert monsters and dark shadows of the past. None have seen it all. The geography of Beast-Yeast remains a mystery as well. Its map, drawn based on the stories of those who went to Beast-Yeast and returned, still contains far too many blank spots.

비스트이스트 대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은 다음 여섯 지역이다. 대륙 북서쪽의 신비한 요정들의 숲, 남서쪽의 새하얀 밀가루 설산, 북쪽의 검은 소금 평원, 동쪽 끝의 울긋불긋한 향신료 산맥, 남동쪽의 반짝이는 설탕 낙원, 그리고 중앙의 높다높은 새파란 탑. 각 지역은 각자만의 극단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니, 탐험에 주의가 꼭 필요하다.

Six major regions make up Beast-Yeast's landscape: the misty Faeriewood in the northwest, the white peaks of the Flour Mountains in the southwest, the barren Black Salt Flatland in the north, the diverse land of the Spice Ridge to the far east, the shimmering Sugar Paradise in the southeast, and the central region with its sky-piercing Blue Tower. Each and every one of them is teeming with danger, posing a considerable challenge even for a seasoned adventurer.

Flora & Fauna

비스트이스트의 식생



비스트이스트 대륙의 깊은 숲속에는 원시적인 디저트 생물들이 가득하다. 다른 대륙에서는 이미 멸종된 곤충류, 균류, 동물류가 여전히 번성하는 이곳은 '디저트 생명 그 자체에 가까운 생명'들의 터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a myriad of ancient dessert creatures within the thick of the Beast-Yeast forests. Many of these insects, fungi, and animals have already gone extinct in other continents but thrive in Beast-Yeast.



| Forest Spirits



| Planaria Worms
Divide when sense danger



| Carnivorous Pancake Mushrooms
Attract prey with the scent of butter hidden among their teeth

| Dough Globsters



| Fluorescent Jelly Plants

Candyceps-infected Deer

이끼사슴 동충하초



달콤한 설탕 동충하초가 숨어있던 이끼에 기대어 잠들었던 은사슴은 다음날 아침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나게 된다... 이 사슴은 이제 설탕 동충하초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A sleepy silver deer rests its head on the moss... unaware that the Candyceps fungus lies hidden amid it. When the deer wakes at dawn, it will take on a completely different appearance... This deer belongs to the Candyceps now. The Candyceps has full control.



20



Jelly Tardigrade

완보맘보

반짝이고 신비한 젤라틴으로 이루어진 원시 디자인 동물. 어떤 극한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으로 비스트이스트 대륙 전역에서 발견된다. 크기가 거대하고, 젤라틴 밀도가 높아 체구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속도는 매우 느리다.

These dessert creatures are made of sparkly gelatin and can be found across the entirety of Beast-Yeast, as they can survive even in the most extreme conditions. Despite their threatening size and high gelatin density, these creatures are painstakingly slow.



I Turnip Rabbits

21



Yeast Spores

효모 포자

쿠키의 가장 작은 단위, 효모가 살아 움직인다? 비스트이스트 대륙 숲속에서만 볼 수 있는 디저트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

The smallest unit of Cookie life: Yeast Spores! They are the life source of dessert creatures in Beast-Yeast.



More Yeast Spores

효모 포포자

쿠키의 가장 작은 단위, 효모가 살아 움직인다? 두 개의 효모 포자가 붙어 생겨난 포포자. 비스트이스트 대륙 숲속에서만 볼 수 있는 디저트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

The smallest unit of Cookie life: Yeast Spores! Wait, they've multiplied! They are the life source of dessert creatures in Beast-Y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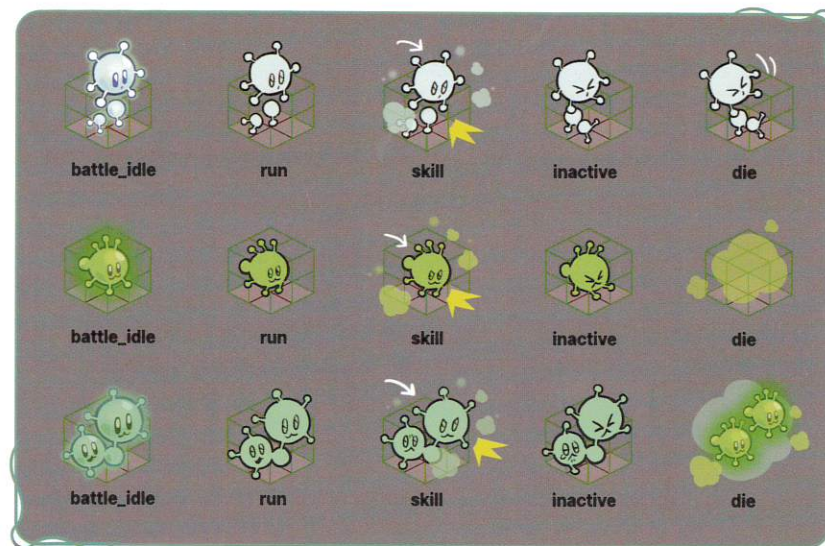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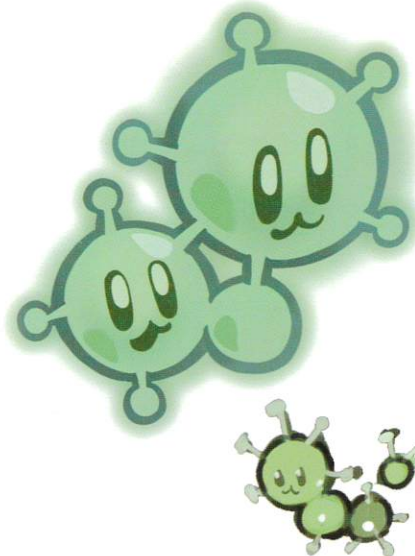


Even More Yeast Spores

효모 포포포자

쿠키의 가장 작은 단위, 효모가 살아 움직인다? 세 개의 효모 포자가 붙어 생겨난 포포포자. 비스트이스트 대륙 숲속에서만 볼 수 있는 디저트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 효모 포자가 과연 몇 개까지 서로 엉겨 붙을 수 있을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The smallest unit of Cookie life: Yeast Spores! Wait, they've multiplied even more! They are the life source of dessert creatures in Beast-Yeast. Just how many more Yeast Spores are there?!





| Concept Art



| Concept Art

하나부터 열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비스티리스트 대륙의 우거진 숲속. 쿠키의 가장 작은 단위인 효모부터, 이름 모를 꽃가루 포자 하나까지 저마다의 생명력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 어떤 것들은 친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웃는 얼굴 뒤에 결국 이들이 노리고 있는 건 바삭한 쿠키들의 생명 가루일지도 모르니...

Creatures beyond your wildest imagination live and breathe in the vast forest of Beast-Yeast. From the smallest Yeast Spores and unidentified pollen particles, each and every thing is living and thriving on this mysterious continent. Some may look inviting, and yet... You mustn't let your guard down, as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and behind a friendly smile could lie a ravenous predator eyeing Cookies' Life Powder...





모든 식물은 원래도 생명체이지만, 유독 비스트이스트 대륙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은 자아가 뚜렷하다고 한다. 의사 표시를 위해서 가끔은 쿠키와 닮은 얼굴을 흉내 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믿거나 말거나.

Unlike plants outside of Beast-Yeast, these plants seem to possess... a consciousness. Some say the plants imitate Cookie faces in order to communicate.



Caramoleon Cookie

카라멜레온 쿠키



이것은 나뭇잎인가, 쿠키인가! 알록달록 예쁘고 쫀득한 카라멜 나뭇잎을 보고 무심코 지나쳤다면 오늘도 카라멜레온 쿠키의 은신은 대성공! 자칭 비스트이스트 대륙의 최고의 생존가라는 이 쿠키는 주변 지형에 맞춰 카라멜 색깔을 바꾸는 능력으로 무시무시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덕분에 비스트이스트 대륙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다니, 처음 방문한 모험가들에게 이만한 가이드는 없을지도?

Is it a leaf or a Cookie?! If you've strolled past a colorful caramel leaf without paying a second thought, that means Caramoleon Cookie's camouflage was successful. This Cookie is a bonafide wilderness survivalist of Beast-Yeast. Equipped with remarkable adaptive abilities and armed with profound knowledge of these dangerous lands, Caramoleon Cookie is the guide of any adventurer's dreams!



| Emotion

Sugarcane Gnome

사탕수수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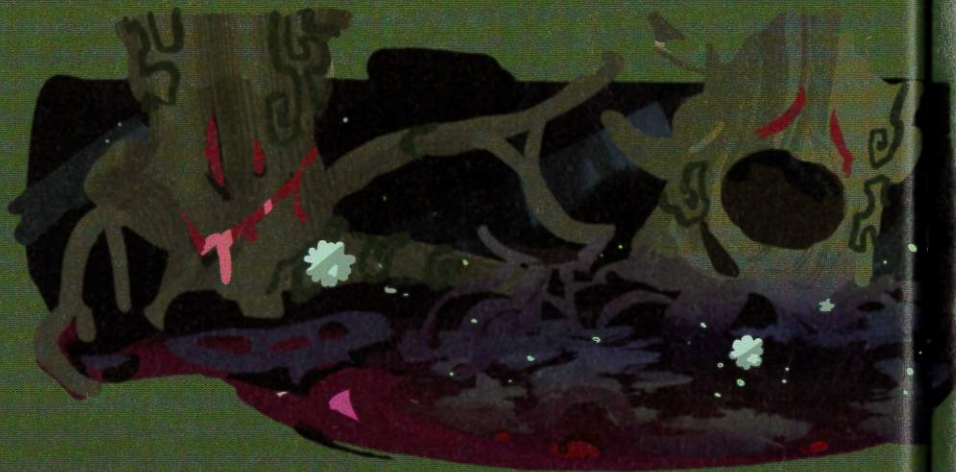
비스트이스트 숲속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노움 종족. 크리스피 대륙에서 발견되는 설탕노움과 꽤 유사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순무토끼를 주로 타고 다니며, 사탕수수 줄기를 다듬어 무기나 악기로 사용한다. 설탕노움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훨씬 사나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귀여운 모습만 보고 가까이 가기 전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

These Sugarcane Gnomes live in the wilderness of Beast-Yeast. Their physical appearance greatly resembles that of Sugar Gnomes residing in Crispia, but researchers have yet to find a link between the two species. Sugarcane Gnomes raise Turnip Rabbits as their mounts and work sugarcane into weapons and musical instruments. Travelers be warned: their likeliness to Sugar Gnomes ends at their short stature and beards. Hostile to all strangers, Sugarcane Gnomes must be avoided unless approaching them is absolutely necessary.



| Variations





모든 식물은 원래도 생명체이지만, 유독 비스티스트 대륙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은 자아가 뚜렷하다고 한다. 의사 표시를 위해서 가끔은 쿠키와 닮은 얼굴을 흉내 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믿거나 말거나.

Unlike plants outside of Beast-Yeast, these plants seem to possess... a consciousness. Some say the plants imitate Cookie faces in order to communicate.





Faerie Kingdom 요정왕국

외부의 쿠키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묘한 아지랑이 속에 감춰진 요정 쿠키들의 왕국. 고대의 악을 봉인하고 있는 봉인수와 그 수호자인 한 요정 쿠키를 중심으로 처음 세워져 지금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 봉인의 명을 내린 마녀들이 남기고 간 고대의 마법과 신비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소문과 전설만이 무성한 척박한 비스트이스트 대륙의 환경을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은백색으로 물들이며, 요정왕국의 쿠키들은 오늘도 묵묵히 쿠키 세계를 지켜낸다.

Behind the shimmering veil, well-hidden from prying eyes, lies the mystical Faerie Kingdom. Eons ago, the Faerie Kingdom was built around the Silver Tree and its faithful Guardian keeping an ancient evil sealed. It is said that traces of the Witches' old magic can still be found there, along with other peculiar relics of the past. Legends and rumors surround the fabled kingdom, yet one thing is for certain: the fate of the world lies on the shoulders of the Faerie Cookies in their Silver Domain.

Silver Tree

봉인수

요정왕국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은백색의 고목. 대륙에 잠든 악을 봉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정왕 쿠키가 이를 수호하고 있다.

A towering tree stands at the center of the Faerie Kingdom. This ancient Silver Tree serves as the seal for an ancient shadow slumbering within the land of Beast-Yeast.



악의 힘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봉인수의 수호자와 은나무 기사단, 수많은 요정 쿠키들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은빛으로 빛나는 봉인의 마법은 견고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래전 봉인수에 큰 상처가 생겼던 위험한 상황에서 넝쿨 마법으로 봉인을 견고히 다져준 어느 바깥 쿠키 덕분에 한층 더 즐거가 두꺼워졌다.

Over the ages, many have tried to awaken this ancient evil, but the Guardian of the Seal, Elder Faerie Cookie, and his faithful Knights of the Silver Tree have never failed to thwart those threats and keep the magic of the seal intact. The Silver Tree has grown only stronger after a certain outlander Cookie mended the rift in its trunk with her magic vines.





Flora & Fauna

요정왕국의 식생

요정왕국은 언뜻 보기에 단순한 은백색으로 뒤덮인 것 같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형색색의 은은한 빛깔들이 모여 오묘한 색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정왕국에 서식하는 꽃들은 색도 향도 맛도 제각기 다양하지만 (심지어는 향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의 꽃도 있다!) 대체로 꽃가루나 포자를 날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재채기가 심하게 날 수 있다.

At first glance, the Faerie Kingdom may appear to be covered in silver, but upon closer inspection, visitors will notice a mesmerizing array of iridescent colors. Flora and fauna native to the Faerie Kingdom exhibit a variety of colors and flavors (although certain specimens demonstrate no scent or color at all!). However, Cookies are advised to exercise caution as the pollen and spores released by the plants can cause excessive sneezing.





Architecture

요정왕국의 건축양식

요정왕국에는 마녀들이 남기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은식기가 많이 남아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쿠키만한 은포크와 티스푼, 찻잔의 손잡이 등을 안전하게 세공한 것을 시초로, 지금은 이런 은식기들을 가공해 크고 작은 가구부터 건축물까지 거의 모든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한다고 한다. 마녀들의 은식기를 가공해서 만든 구조물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묘하고 신비한 은빛이 바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마법이 깃들어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Giant silverware exists in the Faerie Kingdom—presumably, remnants left behind by the Witches. Cookie-sized forks, teaspoons, and teacup handles are utilized in the kingdom, from furniture to building foundations, by smoothing down any sharp edges. Structures built using this silverware never lose their shine, but nobody knows what magic it holds to withstand the passage of time.



40



| Butterfly Garden

41



| Celebration Hall

Elder Faerie Cookie

요정왕 쿠키



Elder Faerie Insignia

"봉인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
봉인수가 무너지면 내 목숨 하나를 보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소."

"I cannot allow that. Guarding the Silver Tree is my duty...
There is no meaning to protecting me if the seal breaks...!"



Emotion



Elder Faerie's Magic Glyph



Initial Sketch

세계가 창조되고 또 멸망하던, 지금은 기록으로만 가늠할 수 있는 그 시절부터 존재해 온 쿠키. 비스 트이스트 대륙 곳곳에 잠들어있는 고대의 악이 풀려나는 순간을 무한히 지연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 뜻과 힘, 의지는 은백색의 봉인수에 고스란히 담겨, 봉인수가 지금의 거대한 고목으로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어주었다.

Elder Faerie Cookie has walked this Earthbread for eons, standing at the very core of countless cycles of birth and destruction that have shaped this world. Only hushed whispers of his origins are passed down as legends. His sole purpose is to contain the ancient and malevolent forces that threaten to escape at any moment. His will and power are imbued within the seal—a vital source of life for the Silver Tree to grow.



A Younger Elder Faerie

Silverbell Cookie

은방울맛 쿠키



"저는 바깥의 쿠키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선 안 돼요."

"I mustn't reveal anything to Cookies of the outside world."



| Emotion

달랑! 상쾌한 아침에 맺히는 이슬을 닮아 톡 치면 호드득 떨어질 듯 언제나 울망이는 눈빛을 가졌지만, 요정 기사로서의 마음만큼은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쿠키. 비밀스러운 은빛으로 가득한 요정왕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요정왕국과 그곳이 간직한 비밀을 지킨다는 무거운 사명감도 거뜬하다고!

With eyes that twinkle like morning dew, this soft-spoken Cookie may seem delicate, yet beneath the surface lies the spirit of an experienced Silver Tree Knight. Silverbell Cookie's unwavering love for the Faerie Kingdom and knowledge of its silvery secrets let him carry the weight of these veiled truths with no worry at all!



| Pose Sketches

Mercurial Knight Cookie

수은기사 쿠키



"봉인수의 운명은 곧 쿠키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
너희들이 알던 모든 평화의 중심이지."

"The fate of the Silver Tree determines the fate of the world.
It is at the center of peace as we know it."



Emotion

봉인수를 수호하는 의지를 잇기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바친다... 그것이 요정왕국과 봉인수의 수호자를 지키는 은나무 기사단의 구호. 기사단장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수많은 은나무 기사들 중에서도 수은기사 쿠키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쿠키는 없다. 은나무 기사가 되기 위해 은빛 축복을 받으며 고유한 맛과 향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요정 쿠키였던 시절은 완전히 잊고 살아간다.

This devoted knight willingly lays down his dough and soul to protect the seal and its guardian... for it is the way of the Silver Tree Knights. As the commander of this order, Mercurial Knight Cookie has sacrificed his all for the Faerie Kingdom. Blessed with Silver, he has given up his flavor and scent that once defined him. Now, completely one with the mission, he lives to serve and protect; his past life a distant memory.



Amalgamation

Pose Sketches



요정왕국에는 오래전 왕국을 재앙으로부터 지켜낸 영웅 쿠키가 잠들어있다고 한다.
왕국 바깥으로 먼 길을 떠났던 이 쿠키가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진 채로 돌아
오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제대로 아는 쿠키는 거의 없지만, 모두가 깨어나
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A heroic Cookie who once protected the Faerie Kingdom from
the Great Calamity lies sleeping in this realm. No Cookie knows
how or why she ended up in this deep slumber in the Faerie
Kingdom, but they all await the day she will wake.



White Lily Cookie

세인트릴리 쿠키



"모두가 행복한 쿠키 세계를 위한 답을... 반드시 알아낼 거야...!"

"The answer that will help me build a better world for all Cookiekind...
It's waiting for me...!"



| Emotion

52



달빛만이 빛나던 어느 밤에, 비를 머금고 피어난 순백의 백합꽃을 닮은 쿠키. 간절한 마음으로 잡힐 듯 말 듯 한 진실을 쫓다 이내 세계의 비밀을 마주하고 깊은 어둠을 깨워냈지만... 언젠가 세인트릴리 쿠키는 고요한 침묵 속에 잠들어버린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될까?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절망을 품에 안고도 다시 한번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할 수 있게 될까?

On a moonlit night, a Cookie blossomed into existence, exuding the essence and fragrance of a pure white lily. All her life, she thirsted for the truth—always within her reach, yet dissipating like smoke when she tried to grasp it...

White Lily Cookie herself could not have foreseen her descent into darkness when finally faced with the grim truth... Will White Lily Cookie's true voice ring out and shatter the darkness one day? And when the fated day arrives, will she choose light over evil?



53



모든 믿음과 희망을 잃은 순간에도 간절한 진심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던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의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 세인트릴리 쿠키는 어둠마녀 쿠키로 새롭게 정의되었지만, 쿠키들의 자유를 위하는 마음은 자유의 빛에 고스란히 남아 세인트릴리 쿠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Even when all hope and faith are lost, one's resolve must not waver. White Lily Cookie was reborn as Dark Enchantress Cookie through her own will, and yet the part of her soul that desired freedom for all Cookies remained imbued in the Light of Freedom—waiting for White Lily Cookie's return.



어둠마녀 쿠키로서는 가질 수 없는 자유의 빛. 어둠마녀 쿠키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자유의 빛. 오직 세인트릴리 쿠키만이 지닐 수 있는 그 빛. 자유의 빛과 함께라면 세인트릴리 쿠키는 다시 한 번 쿠키 세계를 위한 발걸음을 옮길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은 흔들리지도 깨어지지도 않을 진심을 마음에 품고서.

The Light of Freedom—something Dark Enchantress Cookie could never have, something she chose to give up. It is a light so pure, a light only White Lily Cookie herself can wield. With the Light back in her heart, she might have the chance to save the Cookie World. Nobody knows where the journey will lead, but she holds her will—strong and unwavering.



Fallen Heroes

비스트 쿠키

에인션트 쿠키 이전에, 마녀가 구운 최초의 쿠키들이 있었다. 세상을 구성하는 최고로 완벽한 다섯 개의 가치, 지식과 의지, 행복과 역사, 그리고 연대. 이 소울잼을 물려받은 쿠키들은 어썸브레드 대륙 전체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퍼뜨렸고 발을 딛는 곳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각자의 계기로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게 되었다. 더 이상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대신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다.

The Ancient Cookies were not the first the Witches baked. The Five First Cookies, imbued with the Virtues of Knowledge, Volition, Happiness, Change, and Solidarity, were sent to Earthbread to walk its tempestuous lands as envoys of the Godly Creators and sow the seeds of order and civilization. Yet, for reasons unknown, one by one, they turned to evil. No longer saviors of the world, the five took on the name "Beasts."



| Mystic Flour



| Burning Spice



| Shadow Milk

| Eternal Sugar

| Silent Salt



| Shadow Milk Cookie Concept Art



| Puppet Show Props



| Ancient Cookies Puppets



| Dark Enchantress Cookie Puppet

| Elder Faerie Cookie Puppet

| Shadow Milk Cookie Puppet



| Beast Cookies Puppets



멀고 먼 옛날...
힘만 센 바보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오만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보다 힘이 센 쿠키들을 아주 질투했습니다!
이 왕이 가장 질투하던 쿠키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들의 뜻을 이어받은
위대한 다섯 쿠키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보 왕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제멋대로 번덕쟁이 잔혹한 신들이
위대한 다섯 쿠키들에게 벌을 내렸지 뭐예요?

"야호~!!
내가 지키겠소!
나보다 힘센 쿠키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니 말이요!"

바보 왕은 나무를 지키면서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순간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네요~

...아주 바보 같지도 말이죠.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strong,
but foolish, oh so foolish king!
And beyond measure was he arrogant!
And yet... Deep down he envied
all who were stronger than him!

The Five Cookies, so radiant, so glorious!
Chosen by the gods them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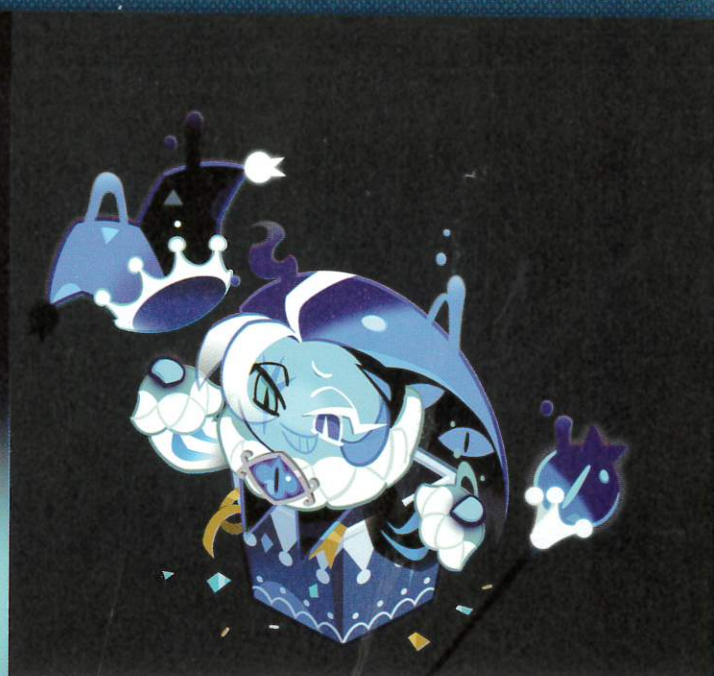
And then, one day, the perfect
opportunity presented itself
to the foolish king!

"Hooray!
Now I will protect this tree!
For no Cookie stronger than me may
exist in this world!"

And so the Fool-King protected his tree,
so proud with himself!
And as foolish as he was...

... the king believed it would last forever!





| Harlequin Faerie Cookies



| Circus Monsters



| Emotion



| Concept Art



Concept Artist

Kwon Seonga
Ahn Soyoun
An Hyunju
Back Bori
Byun Hajung
Cho Yein
Choi Daye
Choi Hyoyoon
Choi Seungyeon
Jo Subin
Jung Bokyoung
Kang Jiyoung
Kang Minah
Kim Eunchong
Kim Hyeonji
Kim Jieun
Kim Sujin
Kim Yeri
Lee Jieun
Lee Jihye
Lee Juhui
Lim Sungyeong
Park Jihyun
Seo Hee
So Hyuna
Song Yerin

Art Director

Ghim Naheun
Jeong Hyejin

Motion Artist

Heo Jiyoung
Jung Insang
Kang Minhee
Keum Seongun
Lee Jungsun
Park Dayu

VFX Artist

Choi Dahee
Kim Jiwon
Ko Chunsuk
Lee Hyunsoo
Lee Subin
Park Suhyun
Song Eunseol

Studio Head Group

Choi Sangyul
Kang Mooseok
Kim Hyangok
Kim Jaewon
Lim Youngman
Seo Yeokyeong
Woo Yujin

Story Artist

Cho Seongbin
Jin Yoomin
Kang Minjung
Kim Heeran
Kim Jimin
Lee Gayeon

UX/UI Designer

Lee Dasol
Oh Bit na
Ryu Hansol
Woo Suzy

Data Engineer

Kim Jongbeom
Lee Jiyong

Dev PM

Kim Moosub
Oh Meeyoung
Park Keonsoo
Suh Jeonghoon

Game Designer

Ban Jihyang
Choi Hun
Han Sanga
Hwang Jaemin
Jeon Aejin
Jeon Chanho
Jung Jongbin
Kim Hyunsoo
Kim Kyoungoh
Kim Wanjin
Kwak Youngjoo
Kwon Jungyeon
Park Hyunho
Park Jingeon
Park Taehyeon
Yeo Kyounggu
Yi Minsoo
Yoon Dahye

Voice Director

Na Onyu
Park Yeonseon

Game Server Developer

Jeon Yoonjae
Kim Juho
Kim Wonryool
Pierre Ricadat
Son Myungbae

Game Client Developer

Choi Seonghun
Ji Sungwook
Kang Jungu
Kim Donghan
Kim Jeonghoon
Kim Junhak
Kim Kangsan
Kim Minje
Kim Soohyun
Kim Yongwook
Kook Jongryul
Kwon Hyungwoo
Lee Hanna
Lee Kein
Lee Kyuho
Lee Yura
Park Jisun

Backoffice Web Developer

Kim Kyungjune

Technical Director

Lim Wonseob

Vision Insight

Yoon Soyeon
Byun Jihun
Lee Jangho
Lee Minsoo
Lee Yunseo
Park Sujin

Quality Assurance

Ahn Eukyung
Bang Jaehyun
Jeong Taeho
Kim Jisoo
Kim Sarang
Kim Wooyoung
Lee Geonhee
Park Chulwan
Shim Hyunwoo

Biz & Live Ops

Sohn Joonho
Huh Danny
An Seungmin
Cha Yoochwan
Choi Jisoo
Chu Irin
Jeon Phillyong
Jeong Heeju
Jin Yan
Jung Hongjin
Jung Kiwan
Kang Yeseung
Kim Baeksan
Kim Jungyun
Kim Kiyoung
Kim Kyoungseun
Kim Minzi
Kweon Yeawon
Lee Kyungmin
Lee Sujin
Lim Junho
Liu Karen
Na Junghwan
Oh Kyunga
Park Jungeun
Shin Jinyong
Yang Gyeonghwa
Yang Seungok

Chief Producer

Cho Kilhyeon
Lee Eunji

Project Director

Kim Ihwan

People Value

Kwak Hyemee
Kwon Jin
Lee Jihyun
Min Jinyeong
Yang Jihyun



CookieRun: Kingdom

Book Artwork

CookieRun: Kingdom Art Team

Book Story

Minjung Kang, Gayeon Lee

Book Editor

Irin Chu

Book Design

Kyungmin Lee

Book Translation(EN)

Aridda Koh, Kyungjoo Joh, Roman Permiakov

Book Project Management

Kyoungeun Kim

Publishers

Kilhyeon Cho, Eunji Lee

Published in 2024 by Devsisters

© Devsisters Corp.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